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0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13일 (음력 10월 26일) 수요일

## “시 악몽 막아라”

# 전남도 작년 ‘반면교사’ 선제적 총력 대응



12일 오전 조류인플루엔자(AI, H5N6형)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군 한 종오리 농장에서 농장주가 농장 입구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올 겨울들어 전남지역 오리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 도내 가금류 농가들이 AI 악몽 재연되지 않느냐는 우려속에 방역·축산당국이 AI차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심 신고된 영암 신북면 한 종오리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

다. 이번 영암 종오리농장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17일 발생한 전북 고창 발생 이후 23일만, 지난달 20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 고병원성 AI검출 이후 20일만이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오리 1만2000마리를 살처분 한 데 이어, 인근 3km 이내 위치한 5개 오리농가 7만6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 영암 종오리 농가 고병원성 확진...순천 이후 20일만 인근 3km 오리농가 7만6000마리 살처분...이동제한도

또 영암과 나주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를 비롯해 영암·나주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 영암·나주 소재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을 금지했다.

특히 고병원성이 확진된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지난달 9일부터 나주 1곳, 영암 9곳 농장에 새끼 오리 18만5000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오는 17일까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또 해당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이 일대 가금농가 88곳, 346만 1000 마리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피해를 기록한 AI사태를 교훈삼아 차단방역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이미 위험지역 오리농가의 휴업보상을 통한 사육제한을 실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일시이동중시위반차량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 위험지역 사육제한은 54농가, 94만마리 규모로 13

억원을 투입했다. 방역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AI 집중소독을 하고 AI 위험지역 내 소규모 사육농가 147곳, 1767마리를 수매해 도태를 추진했다.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한편 거점소독 시설근무자로 사육제한 농가를 우선 채용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당시 AI 위기단계에 ‘실각’으로 발령하지 않고 ‘경계’를 유지, 그 결과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소소를 발생 초기에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가 지연되는 등 조치 차관방역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5월31일 정부가 AI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모두 3807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으며 여기에 3688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전남지역에서는 같은기간 116개 농가에서 213만8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으며 17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정환 기자



### 업보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1일 “오세훈, 이명박보다는 ভাল 자신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시장 출마에 기대와 우려도 있고 ‘윤선열’ 부대서로 운 비단 땀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량한 의견 자체가 민주주의 꽃”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보다는 ভাল 자신이다.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친노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회하지 않으면서 시뮬레이션처럼 공갈치는 게 문제라고 생각 한다”며 주 최고위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신봉우 · 자료사진 = 뉴스시스



정청래



이명박



주승용

## 한국노총전남본부 특별순회교육 실시

### 여수지역 근로자 100여명 참석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12일 여수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전남지역 근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본부가 이날 실시한 특별순회교육은 연발연시를 맞아 노동존중 사회를 조속히 실현하고 노동의 숭고함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갖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정태 노무사(월드노무법인)는 “정시간 근로관행 개선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가족공동체의 정서적 유대감과,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감의 강화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갈등의 해소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실태가 고용 없는 성장인 일상화 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지역 근로자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진



단했다. 이신원 의장은 “소통이 원활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전남 노사민정은 대화를 통해 일자리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여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노동존중 사회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전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 등 상담 무상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